### SENA 월요일

# ▷ 시편 135:1-14

# 20.06.29

# 여호와를 찬양하라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2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서 있는 사람들아, 3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4 여호와께서 야 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 다.

#### •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5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6 여호와 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다. 7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8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9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10 그분은 또 큰 민족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11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12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13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4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본문의 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시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이 세운 질서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6-7절)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4절), 그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며(8-9절)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마련해 주신(12절)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은혜는지금 내게도 임해 있습니다. 무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이길 수 없는 작고 작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내가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 4 적용하기

요즘 나의 입술과 마음을 사로잡은 고백은 무엇인가요? 나의 입술이 세상의 말과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은 멜로디에 취 해 흥얼거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너무 많이 불러서 습관이 되어버린 중얼거림도 아닌,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 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세요. 나는 찬양할 때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을 다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 ②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진심 어린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SENA 화요일

# ▷ 시편 135:15-21

# 20.06.30

# 무엇을 섬길래요?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우상은 허무하다

15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16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18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 • 여호와를 찬양하라

19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0 오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1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조각품일 뿐입니다(15절). 그 안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16-17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구원도 베풀 수 없는 허상을 따른 결과가 결국 허무함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18절).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며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따르고 찬양해야 할 분이십니다.

#### 4 적용하기

우상은 단순히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의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즉 그럴듯한 이론과 미신들,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대중문화 등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내 안에도 이와같은 우상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줄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추구하던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기 바랍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내가 따르고 추구하는 것(혹은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② 세상의 것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마저도 흥분해 소리 높여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미건조하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혹하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상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SENA 수요일

# ▷ 시편 136:1-26

# 20.07.01

#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3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4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6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9 원하시다. 8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9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 •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0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1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2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3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4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 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6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 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7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이 영원하시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9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1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 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2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 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3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4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 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시다.

시편 136편은 예배 때 성가대가 먼저 "~하신 분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로 응답하며 불렀던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이 정한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엄청나신 분이 작고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찬양하는 이 은혜는 지금 내가 누리고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자연의 질서들 속에 나를 두시고, 내게 주목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음을 믿나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도 이 시편처럼 "그분은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1절)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 4 적용하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세요. 나를 위해 만드신 자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등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를 먼 데서 찾지 마세요. 감사는 늘 일상 속에 있습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일상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꼽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② 요즘 나의 일상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SENA 목요일

# ▷ 시편 137:1-9

# 20.07.02

# 다시 주를 붙듭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슬픔 속에서 부르는 노래

1 바벨론 강 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2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3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4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5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6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 • 원수를 향한 저주

7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라고 했습니다. 8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딸아,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 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9 네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한 것만으로도 슬픈데 고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로 낯선 이방 땅에서 바벨론을 기쁘게 해야 하는 괴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3절). 하나님을 잃고 나서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시인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은 비참해졌지만,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자비했던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마주한 백성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철저히 낮아진 자리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 기도와 고백이 오늘 내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 4 적용하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재능을 바벨론을 위해 사용해야 했던 백성처럼 말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나요? 내가 찬양할 대상, 찬양할 노래를 바로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심판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요즘 누구의 요구에 따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주위의 다른 사람인가요?
- ② 이미 끝났다며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다시 붙들어야 할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SENA 금요일

# ▷ 시편 138:1-8

# 20.07.03

# 고통만큼 자란 믿음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다윈의 니]

#### •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

1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3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 •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

4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5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7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위협받는 등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3절). 이제 다윗은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7절). 이제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4-5절). 이렇게 고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고백이 나의 삶에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를 괴롭히는 고통은 오히려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 4 적용하기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그려 가시는 큰 그림이 어떠한지를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슬픔, 기쁨, 영광 등의 모든 순간들을 겪으며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오늘 하루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나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이 고통이 오히려 믿음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될 것을 믿나요?
- ② 하나님은 분명 땅의 모든 왕들이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4절).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과정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토요일

#### ▷ 시편 139:1-12

20.07.04

# 나를 잘 아시는 주님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다윈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 • 나를 살펴 아시는 하나님

1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2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3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4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5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6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 • 주 앞에서 숨지 못하는 인생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10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11 내가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 달라" 해도 12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할 명령' 등이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0	비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